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기권은 정치적 방패가 아니라 악에 품위를 입혀 주지 않는 용기(155쪽 ¶5~¶6). ①은 효과가 작아도 거부 자체가 입장이라는 말과, ⑤는 '비겁이 아니라 용기'와 반대.
2	④	옛 원로원 의원이 어려서부터 카토를 자신을 재는 본보기로 삼음(154쪽 ¶1~¶3). ①은 물러난 '다른' 스토아의 이야기, ⑤ 세네카는 훗날 그런 말을 썼을 뿐 스승이 아니다.
3	②	네로는 목숨은 빼앗아도 해칠 수는 없었고, 거듭 해친 것은 자기 자신(158쪽 ¶8~¶11). ③은 '잠깐의 즐거움 말고는 거의'라는 단서를 지운 지나친 일반화.
4	⑤	아첨꾼을 꾸짖으며 트라세아의 공정함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그가 자기 편이기를 바람(155쪽 ¶2). ④ 비판한 사람은 오히려 꾸중을 들었다.
5	①	악의적 속삭임이 오히려 최고의 찬사가 됨 → 적의 두려움이 우리의 무게를 드러낸다(156쪽 ¶2~¶3). ③은 '늘 믿으라'로 바꾼 오답.
6	①	①은 세네카에게 같은 예우를 베푼 Nero, ②·③·④·⑤는 Thrasea.
7	④	서기 42년 클라우디우스의 명령으로 장모가 자결(154쪽 ¶5). ① 아마 영향을 받았을 뿐 ③ 포르키아처럼 스토아 가문 ⑤ 장인도 똑같이 해야 했다.
8	⑤	카피토는 몇 년 만에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고발했다(155쪽 ¶1 rank was restored).
9	④	전치사 in 뒤 동명사 → opposing. ① 목적격 관계대명사 ② 동사를 꾸미는 부사 ③ anything을 꾸미는 현재분사 ⑤ refuse + to V.
10	③	(A) 다섯 황제에 의해 약해진 수동 → weakened (B) ask + O + not to V → to step (C) 전치사 for + 동명사 → sending.
11	⑤	너무나 '역겨워서(disgusted)' 투표를 거부했다(155쪽 ¶4) → pleased는 정반대.
12	②	현 상태를 거부하는 일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154쪽 ¶6). ③ 시대에 맞추는 것은 '다른' 스토아의 방식(154쪽 ¶2).
13	③	③ 앞은 침실에서의 추측 두 가지(Perhaps · Or), 뒤는 정맥을 여는 실제 행동 → In the end가 그 사이를 잇는다. ②는 두 추측을 떼어 놓는다.
14	②	네로의 마지막 날들 사이에 정원에서 소식을 들은 트라세아의 말(156쪽 ¶9 ~ 157쪽 첫 줄)이 끼어든다.
15	⑤	죄는 돌아온다 → (C) 지지가 무너짐 · 음모 = 하나의 신호 → (A) another such sign · 마지막 몇 해 → (B) In the end 군대가 먼저 등을 돌림.
16	①	나라가 손쓸 수 없음(beyond repair)을 보고 물러났고, 굴복(submission)이 아닌 정면 편지로 맞섬. beyond criticism은 '흠잡을 데 없는'이라는 뜻.
서답형	UNBOWED	(1) U Padua (2) N Cato (3) B 57 AD (4) O 59 AD (5) W Arulenus Rusticus (6) E False (7) D Helvidius Priscus → U-N-B-O-W-E-D. 완성 단어 unbowed(굽히지 않는)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A. Rome · S. Cilicia, C. Seneca · V. Cicero, F. 63 AD · Q. 65 AD, G. Capito · J. Demetrius, H. True.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무렵 파도바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다.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 **Born in Padua around the time of the death of Augustus, he belonged to a wealthy and noble family.**

02 카토의 용기가 로마에 그림자를 드리운 지 수십 년이 지났다. (It had been + 기간 + since)

→ **It had been decades since Cato's courage had cast a shadow in Rome.**

03 그의 역사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공화정의 인물들이 그에게는 거의 살아 있는 듯했다. (so + 형용사 도치 + that)

→ **So deep was his love of history that the figures of the Republic were almost alive to him.**

04 누가 황제이든 그가 대세를 따를 가능성은 낮았다. (가주어 it + that절 / no matter who)

→ **It was unlikely that he was ever going to go along to get along, no matter who was emperor.**

05 원로원은 그 시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결국 트라세아의 개입으로 저지되었다. (결과의 only to부정사(수동))

→ **The Senate sentenced the poet to death, only to be stopped by the intervention of Thrasea.**

06 트라세아가 재판관으로서 훌륭한 만큼 내게도 훌륭한 친구라면 좋겠다. (I wish + 가정법 과거 / as + 형용사 + a + 명사 + as)

→ **I wish Thrasea were as excellent a friend to me as he is a judge.**

07 트라세아는 너무나 역겨워서 투표를 거부했다. (so ~ that / refuse + to V)

→ **Thrasea was so disgusted that he refused to vote.**

08 그것은 비겁이 아니라 용기였다. (not A but B)

→ **It was not cowardice but courage.**

09 이제 트라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덕적 권위를 발휘하려 애쓰는 것뿐이었다. (All S could do was + 원형)

→ **All Thrasea could do now was try to exert some moral authority.**

10 트라세아는 네로가 몰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두지 않았다. (give + IO + DO / 동격 of -ing)

→ **Thrasea refused to give Nero the pleasure of undermining him in secret.**

11 트라세아는 그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했다. (ask + O + not to V)

→ **Thrasea asked him not to intervene.**

12 내일 추방되느니 차라리 오늘 죽겠다. (would rather A than B)

→ **I would rather be killed today than banished tomorrow.**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트라세아의 출생 · 사망 / 출신	서기 14년 / 서기 66년 · 파도바
스승들이 '무엇보다' 심어 준 것	원칙에 따른 삶(principled living)
'자신의 카토를 고르라'고 쓴 사람 / 카토에 관한 책을 전한 사람	세네카 / 플루타르코스
영감을 주었을 모임 / 그 모임을 그린 저술	스키피오 서클 / 키케로의 저술
장모가 자결한 해 / 명령한 황제 / 마지막 말	서기 42년 / 클라우디우스 / "보세요, 아프지 않아요"
고발을 지지한 해 / 고발한 사람들 / 고발당한 사람	서기 57년 / 킬리키아 사절 / 전 총독 코수티아누스 카피토
착취 사건을 맡은 앞선 두 사람	루틸리우스 루푸스 · 카토
트라세아가 목숨을 구한 사람 / 그때 주장한 것	네로를 비판한 시인 / 자비와 절제(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 처럼)
네로가 트라세아에게 바란 것	재판관으로서 훌륭한 만큼 친구로서도 훌륭하기를
네로가 어머니를 죽인 해 / 트라세아의 대응	서기 59년 / 자리를 떠나 투표 거부
카토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 맞선 수단	의사 진행 방해(filibuster)
신격 영예를 받을 뻔한 네로의 새 아내 / 추방을 요구한 강도 귀족	포파이아 / 클라우디우스 티마르쿠스
궁전 입장을 거부당한 해 / 그 뒤 반은퇴 기간	서기 63년 / 3년
트라세아가 지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장례식의 주인 · 해	포파이아 · 서기 65년
카피토가 네로와 트라세아를 견준 두 인물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카토
결의를 막으려 한 동료 스토아 / 추방된 사위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
정원에서 대화한 사람 / 트라세아의 말을 전한 사람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 / 에픽테토스
트라세아가 헌주를 올린 신	해방자 유피테르
군대에서 누구보다 충성했다고 말한 음모자 / 단검을 흔든 보좌관	사브리우스 플라부스 / 에파프로디투스
네로가 붙잡혔다면 시신이 던져졌을 곳 / 그 묘사를 한 사람	타르페이아 바위 / 제임스 롬
카토와 트라세아라는 이름이 뜻하는 네 가지	용기 · 지혜 · 절제 · 정의

4-3. 통합 사고 문제 — 18장과 21장을 잇는 자리

문제

18장에서 저자는 공자의 원칙(도가 없는 나라에서 봉록을 받는 것은 수치)을 들며, 세네카에게는 상관이 처음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 때 이미 그 수치가 분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세네카는 거의 15년을 섬긴 뒤에야 나라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썩으면 현자는 헛되이 애쓰지 않는다고 쓰게 되었다(142쪽 ¶3~¶4). 21장의 트라세아는 서기 59년 어머니를 죽인 네로에게 원로원이 영예를 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155쪽 ¶4~¶5), 63년 원로원이 네로의 문전 박대를 그대로 두자 나라가 이미 손쓸 수 없다고 보고 반쯤 은퇴했다(155쪽 ¶7 ~ 156쪽 ¶1). 156쪽 ¶1 첫 문장의 빈칸을 원서의 표현(두 단어)으로 완성하고, 이 문장으로 세네카와 트라세아를 비교하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8장 또는 2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156쪽 ¶1 첫 문장: A Stoic must learn when to _____ when the cause is hopeless.

156쪽 ¶1의 표현: walk away (가망 없는 대의에서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근거 1 (예시): Seneca realized this too late: the shame should have been obvious the first time Nero tried to murder his mother, yet only after nearly fifteen years of service did he write that a wise man will not labor in vain for a state so rotten as to be past helping.
근거 2 (예시): Thrasea, by contrast, refused to vote honors for Nero's matricide in 59 AD, and once the Senate allowed Nero to reject him in 63 AD, he saw that the state was long past helping and spent his last three years in semi-retirement, with no blood on his hands.
채점: walk out(155쪽 ¶4의 표현)은 156쪽 ¶1의 표현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walk away) + 두 인물의 대비(너무 늦게 깨달은 세네카 / 일찍 동의를 거두고 물러난 트라세아)를 각각 근거로 들 것 + 18 · 21장 어휘(shameful, past helping, labor in vain, complicit, enabling, matricide, abstain, rubber-stamp, semi-retirement 등) 포함. 세네카가 어머니 살해를 눈감아 줄 생각이었던 '듯'하다는 원서의 추측(155쪽 ¶4 seemed)을 사실로 단정하면 감점. 세네카가 희곡 『티에스테스』에 쓴 "죄는 흔히 그 스승에게 돌아온다"(143쪽 ¶4)와 21장의 "죄는 저지른 자에게 돌아온다"(157쪽 ¶5)를 이어 네로의 최후까지 짚으면 가산.